

개혁주의 세계관과 한국 사회

최용준 (한동대 교수, 실행위원)



지난 5월 2일부터 7일까지 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총신대학교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세계개혁교회컨퍼런스'가 총신대학교에서 있었다. 그중 동역회 임원의 논문 두 편을 소개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간 전례 없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 특별히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회가 이러한 부흥의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현재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어, 교회사적 관점에서 개혁주의의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선교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근대화 과정에도 결정적인 공헌을 하여,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선 것은 물론 교육 및 의료 사업을 일으켰고, 금연, 금주, 남녀평등, 절약, 정직과 근면, 직업 소명설 등 정신 개조운동을 실시하여 20세기 한국사회의 기초를 놓았다. 이러한 문화적 변혁 밑바탕에는 개혁주의적 세계관이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교 100년을 맞은 한국교회는 극심한 세속화의 물결에 노출되면서 교세는 위축되고, 교회 지도자들의 잇단 스캔들로 그 위상과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하여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개혁주의적 세계관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학문, 정치, 경제 등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 곳곳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국교회의 지난 100년을 회고하며 개혁주의 세계관이 한국사회에 미친 변화를 살펴본 후, 새로운 100년을 전망하며 어떤 패러다임으로 한국사회를 변혁할 것인지 나아가 글로벌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보고자 한다.

개혁주의 세계관의 내용

개혁주의 세계관은 주로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면서, 세계관(wereld- en levensbeschouwing)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자 1880년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를 설립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어떤 영역도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신칼빈주의(Neocalvinism)라고도 불리는 이 개혁주의 세계관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구속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전히 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성숙으로 나누는 스펀라적 이원론은 용납되지 않는다.
2.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후 이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며 보존할 소위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을 축복으로 주셨다.
3.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피조계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지금 이 세상은 깨어지고 뒤틀려 믿음하게 되었다.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속을 성취하셨고 이후 성령께서 오셔서 이 구원을 개별적, 교회적으로 적용하시며 마침내 완성하신다.
5. 우리 삶의 각 영역(교회, 국가, 가정, 기업 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름의 책임과 주권이 있다. 따라서 어느 영역도 다른 영역에 주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영역 주권 *sovereiniteit in eigen kring*, Sphere-Sovereignty).

6. 피조세계의 구조와 방향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구조란 창조자의 법칙 및 질서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 반면 방향은 창조 규범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이다.

7. 타락에도 불구하고 피조계의 완전한 파괴를 방지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악의 확장을 억제하며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베푸시는 비구속적인 선물이다.

8. 역사 및 개인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나라 간의 영적 대립(Antithesis)이 존재한다.

9. 따라서 모든 생각과 삶은 궁극적으로 세계관에 의해 결정되며 이 세계관은 종교적 근본 동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은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 형성되고 인도되어야 한다.



근대 한국 사회의 개헌

한국 역사는 다양한 세계관의 실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조선에서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지배적이었으나 그 한계가 드러나면서 불교적 세계관이 등장하여 고려시대에 국교로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고려 말 불교가 타락하면서 문계정들이 드러나자 이성계는 조선 왕조를 창건하며 유교를 국시(國是)로 채택하였다. 19세기 후반 유교적 세계관의 한계점이 노출되더니 결국 국권을 일본에 빼앗기는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 전파된 기독교는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주요 세계관들의 실패로 말미암은 영적·정신적 공허 및 진공 상태에 등장한 복음은 한민족에게 비취진 한 줄기 생명의 빛이었다. 따라서 '개화'를 주장하던 대부분의 선각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성경적 세계관이 그들의 삶은 물론 한국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1. 만물의 기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적 하나님 사상은 미신적이고 다신론적인 샤머니즘과, 신관이 모호하던 불교사상, 하늘을 신성시하던 유교적 신관을 극복하여 인격적인 창조주로 계시되었다.

2. 성경적 인간관 제시와 전통적 세계관 변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문화적 대리인

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책임지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한국의 사회 및 문화 구조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운명론적 결정론에 빠지게 했던 샤머니즘적 인간관을 극복하였고, 노동의 중요성과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상은 유교적 신분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수직적 계층구조를 수평적 만민 평등사상으로 전환한 것은 영국의 노예해방 못지않은 사회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3. 남녀 차별의 극복: 당시 여성들은 유교적 남존여비 사상의 희생물로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남녀 평등적 세계관이 소개되면서 여성 교육기관(이화 학당 등)이 세워지는 등 보편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어 여성들의 권익 및 리더십이 함양되면서 민주주의의 발전도 가속화되었다.

4. 현대적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청나라가 근대화된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선구자적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인 유교적 교육 시스템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과학 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개화사상을 주창했다. 이러한 신교육을 통해 사회·문화적 개혁을 추진하여 교회만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전반적인 교육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여기서 배출된 그리스도인 엘리트들은 교회는 물론 사회에서도 존경 받는 지도자들이 되었다.

5. 병원 설립을 통한 사회의 보건 증진: 많은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를 병행하여 육적·영적 치유를 함께 진행하면서 과학과 신앙 간에는 어떤 불필요한 갈등도 없었고 여성 의사들도 배출되면서 한국 사회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6. 절약, 검소한 삶을 통한 경제적 자립 도모는 한국 경제 발전의 정신적 밑거름이 되었다. 특별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이 한국교회의 눈부신 성장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7. 현실을 보는 관점의 변화: 다신교적 샤머니즘을 극복하면서 합리적 사고방식이 장려되고 근대 과학기술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불교적 세계관에 비판하여 좀 더 현실적이면서 능동적·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격려했다. 자유, 평등, 정의, 평화 및 인권의 가치가 소개되어 나라의 독립 및 민주주의, 언론의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개혁주의적 문화관과 역사관은 시민운동 및 윤리실천을 통해 사회 변혁에도 공헌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인권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8. 한글성경의 보급으로 문맹률이 떨어지고 한자에 의존한 유교적 문화 극복에도 큰 공헌을 했다. 한문으로 적혀 보편적 접근이 어려운 불경이나 유교 경전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글로 기록된 성경은 평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다.

9. 일제강점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 지도자들은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며, 해방 후 경제가 발전하고 한국교회의 위상이 높아지자 선교와 더불어 저개발 국가들은 물론 특별히 북한 동포와 지하교회들,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세계적으로도 공헌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적 세계관은 전통적 세계관이 가진 걸림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여 근대화와 문화적 개혁을 추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변혁해야 할 부분들은 남아 있다.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 보자.

현대 한국 사회와 개혁주의 세계관

부흥을 거듭하던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교회는 퇴보하기 시작했으며 사회의 존경과 인정 대신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물질주의의 범람: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물질주의와 사머니즘적인 현세 기복적 세계관이 침투하여 물질적 성공이 축복이라는 변영 신학(prosperity theology)이 지배하게 되었다. 무리한 예배당 건축으로 헌금이 강요되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구약의 성전 개념과 신약의 교회공동체 개념을 혼동한 결과로 중세 가톨릭교회가 거대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다가 종교개혁을 낳은 것과 유사한 오류로 볼 수 있다.

2. 교회의 분열: 특히 장로교회의 거듭된 지역교회적, 교단적 분열은 결국 사회 지탄은 물론 성도들을 상처 입히는 결과를 낳았다.

3.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각종 스캔들, 표절 등에 진정한 회개와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교회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또 유교적 권위주의가 교회 제도에 스며들어 이에 반발하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례도 늘었으며, 설교 본문이 일부 성구에만 편중되어 있고 성찬의 중요성은 경시되고 있다.



4. 기독교 대학의 세속화: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들이 건학 초기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잃고 대학 운영을 위한 상업적 논리에 밀려 무리한 정원 확장 및 교수 충원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유입되었고 세속화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5. 이슬람의 도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은 한국에서도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아직 이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6. 다원주의의 확산 및 다문화 사역: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주의는 동성애, 성전환 등의 차별 금지법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급속히 늘어나는 데도 교회는 여전히 한민족 중심의 목회에 머물러 있다.

7. 한국사회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각 분야의 기독교인 전문가들은 학문, 문화, 세계관 등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개혁주의 세계관도 지속되고는 있으나 21세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혁주의 세계관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운 도약과 퇴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그렇다면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는 어떠한 패러다임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되짚어 보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

1. 물질주의의 도전: 개혁주의 세계관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머니즘적인 기복 신앙을 철저히 뿌리 뽑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희년 정신과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삶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네덜란드의 저명한 봄 하웃즈바르트(Bob Goudzwaard) 교수는 경제는 이제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돌봄의 경제(economy of care)'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독일의 유명한 기독교 언론인 피터 한느(Peter Hahne)도 『Schluss mitlustig! Das Ende der spaßgesellschaft(과욕은 이제 그만: 즐기는 사회의 종말)』에서 지나친 욕심을 자제하고 겸소한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비슷한 논리로 기존의 천편일률적 교회당 건물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한 교회는 예배용 의자를 치우면 애찬은 물론,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가능한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복음적인 교회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로잔 운동에서도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교회가 보다 더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그 창시자 중 한 명인 존 스토틀트는 『현대 사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에서 교회가 실업 해소에 공헌하기 위해 개신교 노동 윤리(근면, 정직, 청지기 정신, 검약)를 강조하는 동시에 놀이방, 유아원,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열린 청년 모임, 커피숍, 직업 훈련 등 실업자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사역 방안을 제시하였다.

2. 특별히 많은 분열을 겪어온 한국 장로 교단은 이에 대한 반성과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아



가 국내외적으로 좀 더 연합하고 긴밀히 협력할 때 한국 사회는 다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목소리에 경청하게 될 것이다.

3. 한국교회의 윤리적 타락은 개혁주의적 세계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제자도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한국 사회를 위해 개혁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성결하고 정직하며 투명한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 교회가 기독교를 과감히 내려놓고, 투명한 재정으로 운영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철저한 회개와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탈권위적 패러다임을 보여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는 보통 설교 본문이 일부 구절에 치우쳐 있어 성도들도 영적으로 편식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경 본문 전체를 3년 단위로 나누어 골고루 선포하는 등의 균형 잡힌 설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잃어버린 성찬



나오며

20세기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중세적 전통사회가 근대 시민사회로 탈바꿈하였고 경제 또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나아가 이제 한국 사회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입장이 되었고 그만큼 다문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교회 및 개혁주의 세계관은 나름대로 적지 않은 공헌을 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축복의 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개혁주의 세계관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교회 및 세계 교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도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의 축복도 회복해야 한다. 종교개혁 정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찬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른 성찬을 회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다.

4. 기독교 대학의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다시 개혁주의적 세계관으로 돌아가 학문과 신앙, 삶이 온전히 통합된 모델을 이뤄야 한다. 교수들이 먼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기독교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 대학은 물론 유치원에서 초중고까지 모든 교육이 교회 및 가정과 삼위일체를 이루어 전인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사교육없이도 훌륭한 인물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한다.

5. 한국교회는 교단적 차원에서 이슬람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일학교 공과에 이슬람에 관한 내용을 실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자 및 평신도들에게도 자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슬람적 세계관과 무슬림

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전도에 열정적인 무슬림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향한 새로운 열정과 헌신이 최선의 대응책이 될 것이다. 무슬림에게 관심과 사랑, 존경심을 가지고 우정을 쌓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대화하며 구체적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6. 포스트모더니즘적 상대주의가 지배적인 사조가 되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외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혁주의적 세계관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동성애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을 통해 교회의 입장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다문화 사역은 한국교회가 적극 발전시켜야 할 모델이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글로벌 사회로 변모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순종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거하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이웃처럼 사랑해야 했다(출 22:2-1;23:9). 신약의 교회들 또한 대부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다문화, 다인종 교회였다(갈 3:28). 앞으로 국내외 교회들도 다문화 사역을 통해 진정한 '보편적 교회'(universal church)로 거듭나는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 모든 민족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7. 각 분야의 전문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여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지구촌에 진정 글로벌한 공헌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원론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며 구속되도록 헌신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지난 5월, 총회설립100주년기념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최용준 교수님의 논문 ‘Reformed Worldview and Korean Society’를 주최 측에서 번역하여 저자의 허락 및 확인 하에 본지 편집부에서 요약한 것입니다.”



최용준 한동대 교수이자 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실행위원이며 VIEW(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 대학원) 및 ETR(벨기에 복음신학대학원) 객원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웨스터민스터 신학원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거쳐 남아공 포체프스트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쾰른한빛교회,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와 KJCS(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였다.